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2012년 하반기 새교우 환영회가 오늘 11시 예배 후 중교 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성탄맞이축하 행사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2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2013년 가정예배서, <하늘양식> 과 <헤른후트 기도서>를 신청 받습니다. 목상집이 필요하신 분은 위 두 권 중에 한 권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 전화번호부 작성을 위해 로비에 마련된 명단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과 2월 설거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9일은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통독 성경 : 마태 · 마가 · 요한복음서
 일 시 : 1월 7-9일 (월-수요일) 저녁 7시 30분
 장 소 : 교육관

오늘 식당 봉사 : 이영란 이현순 이소혜 이소애 이윤정 방극숙 이국노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최희정 백묘현 이성범
 오늘설거지봉사 : 유상진 한세미 이주율 류정욱
 다음주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새 교 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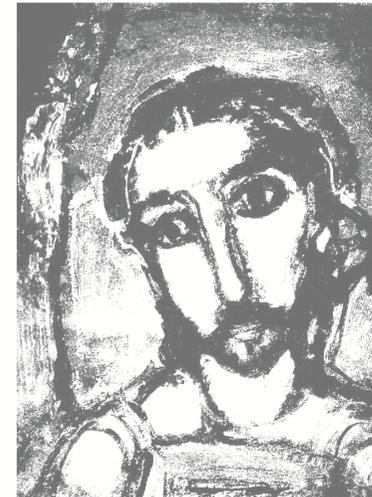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불을 밝히는 대림절기, 참된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짙은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고된 세상살이로 무더진 우리 영혼의 심지에도 불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 최고의 자리에 서려는 이들에게 섬김의 마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낮은 자리에서 모든 이들을 섬기려는 마음 없이는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팎으로 갈등과 위기에 직면한 이 나라를 잘 운영해나갈 지도자가 선출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경수 김근종 정옥영 김용길 최영혜 김재흥 최희영 김정길 최숙화
 김준우 우순덕 박창운 허정운 배재경 이수정 윤미경 윤성종 김윤정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경남 이계선 이소순 이민범 공재량 이성범
 권현숙 이예서 이우원 옥귀희 이정은 이진영 한양미 이현순 정연희
 조경자 조병억 조정연 조병주 조순덕 최윤희 최철수 곽권희 한상의
 정영선 홍복선 무명

감사헌금:

김대규 박경애 김용진 박효선 박창운 허정운 이경민 이춘재 정윤석
 김현영 한규숙 5여선교회 무명4

녹색꿈헌금:

배근수 김금순 양재성 임미심 이진영 한양미

생일감사헌금:

박성실

	장혜숙 노순옥 최희영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박효선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손성현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허정운 김금순 권미숙 오현정 서정순 조향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연합교회	섬
--	---	---	------	---

마음으로 읽는 글

만일 시인이 사전을 만들었다면

만일 시인이 사전을 만들었다면/ 세상의 말들이 달라졌으리라
봄은 '떠난 자들의 환생'으로 자리바꿈하고
제비꽃은 '자주색이 의미하는 모든 것'으로
하루는 '영원의 동의어'로

인간은 '가슴에 불을 지닌 존재'로
얼굴은 '그 불을 감추는 가면'으로
새는 '비상을 위해 뺏 속까지 비우는 실존'으로
과거는 '창백하게 타들어 간 하루들의 재'로
광부는 '땅 속에 묻힌 별을 찾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가슴 안의 시를 듣는 것
그 시를 자신의 시처럼 외우는 것
그래서 그가 그 시를 잊었을 때/ 그에게 그 시를 들려주는 것

만일 시인이 사전을 만들었다면/ 세상의 단어들이 바뀌었으리라
눈동자는 '별을 잡는 그물'로
상처는 '세월이 지나서야 열어 보게 되는 선물'로
목련의 잎은 '꽃의 소멸'로
죽음은 '먼 공간을 건너와 내미는 손'으로
오늘 밤의 주제는 사랑으로

- 류시화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아멘. 작은 성공을 바라며 세상 힘에 의지하며 살았던 지난 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승리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맘에 채워주실 기쁨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정영선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근중 권사	하현철 권사 장대호 집사

12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정민 장대호 심상숙 이해령 한숙경
	헌금위원	방문성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헤른후트 기도서

헤른후트(Herrnhut), 우리말로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을 의미한다. 헤른후트 공동체 운동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독일의 북동부에 위치한 한 자그마한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폰 친첸도르프(1700~1769)에 의해 시작된 창조적인 디아코니아 공동체 운동이다. 초대교회를 지향했던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드레스덴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그의 일생을 변화시킨 모라비아 교도들을 만난다. 이들은 체코 프라하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1415년에 화형당한 얀 후스의 후예들이었다. 친첸도르프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유지를 제공하여 정착하도록 하는데, 이들은 그곳을 ‘헤른후트’라 칭하고 1727년경 200여 명의 모라비아 이주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다.

이들에게 아주 독특한 형식의 말씀 묵상집이 전해 내려오는데, 바로 헤른후트 기도서이다. 이 기도서는 ‘Die Losungen(로중)’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군사적인 용어로 ‘암구호’라고 한다. 군인이 싸우러 나갈 때 암구호는 적군과 대치 상황에서 아주 생명과 같은 것이다. 만약에 암호를 잘못 외우거나 모르면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기도서의 첫 주장자인 친첸도르프는 헤른후트 공동체원들이 매일 매일의 삶속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말씀으로 영적 투쟁에서 승리할 것을 바라면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였다.

필자는 2007년과 2009년 여름, 헤른후트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 첫 방문 때 우연히 이 로중을 만드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나에게 지난 300여 년 동안 매일을 위한 구약성서 구절을 준비시키기하여 뽑아내는 바구니를 보여 주었다. 그 안에는 1800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 준비가 있었고 한쪽에는 번호와 성서 구절이 적혀 있는 문건이 있었다. 아주 인상적이었다. 300여 년 전부터 컴퓨터의 도움이 없이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그 과정 속에서 성서 구절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경이로움을 자아냈다. 흥미 있는 것은, 1년을 위해 뽑힌 준비는 다

음 3년 동안 옆으로 놓이고 이 기간에는 이미 뽑힌 구절은 제외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뽑힌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헤른후트 로중에 관련된 디트리히 본회퍼의 일화가 있다. 1939년 7월 미국 유니언신학교 초빙 교수로 있던 본회퍼는 당시 그의 심경을 그의 책 <공동의 삶>(Gemeinsames Leben)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헤른후트 기도서는 단순한 성경 말씀 구절에 그치지 않는다. 매일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갈 길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본회퍼는 1939년 여름, 미국에서 기록한 일기문에 아주 분명한 필치로 자신이 미국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로중 말씀을 읽으며 고민하는 흔적이 나온다. 그러한 고심을 하는 가운데 로중의 한 말씀이 그를 강타한다. "주님은 은을 정련하고 깨끗하게 하신다." 말라기서의 이 한 말씀을 읽고 덧붙여 옆에 기록한다. "나는 나를 더 이상 잘 알 수 없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잘 알고 있다. 결국 모든 행동과 실천은 분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의 부딪침 이후, 본회퍼는 지체하지 않고 독일로 돌아온다. 그리고 저항 운동에 가담한 본회퍼는 1943년 4월 5일 체포되고, 1944년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교수형으로 처형된다.

본회퍼에게 헤른후트 기도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필자도 그동안 이 작은 기도서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 이 기도서의 매일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하루의 영의 양식으로 결코 부족하지 않다. 지난 283년 전부터 개신교 전통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이 기도서가 51개 국어로 번역되어 지구상의 많은 이들이 동일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다. 필자는 헤른후트 기도서 2009년도 판부터 <말씀 그리고 하루>(한국디아코니아연구소)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한국에 소개하고 있다. 이제 네 번째 한국어판인 <2013년 말씀 그리고 하루>가 출판되었다. 필자는 이 작은 묵상집을 통해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에 닿을 내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해 본다. 더 나아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말씀’인 디아코니아를 조용히,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실천해 나가기를 희망해 본다.

- 홍주민, <뉴스앤조이>의 ‘책 이야기’

헤른후트 형제단 <2013 말씀 그리고 하루> 중에서